모세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참 좋다

(히3:1~6)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세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참 좋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모세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 나의 구주되신 것이 참 좋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독일대학의 신학부에서, 반 농담 반 진담처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 뭐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의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독일에 대학의 신학부, 독일의 신학계에서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다음이다.'
근데 이 말이 반 농담 반 진담이라는 얘기는 왜 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하는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역

사에 대해서, 공부깨나 했다는 신학자들이 예를 들어 '부활은 제자들의 망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냥 학문적인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라 이겁니다.
세미나 시간에서라도 루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루터에게 흠집을 내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독일의 신학계는 절반은 아직도 가톨릭에 속해 있고 그 절반은 개신교인데,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파와 캘빈파가 있습니다.
근데 캘빈파가 소수에요, 열세에 몰려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캘빈파를 얼마나 이 견제를 하는 몰라요, 루터파가.

저는 장로교에 속한 사람으로, 개혁파에 속한 신학자를 제가 공부한 그 괴팅겐대학에 개혁신학 석좌로 계시는 분에게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썼거든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부심과 주심이 두 분이서 이 논문을 심사를 하실 때, 어쩔 수 없어요, 주심은 개혁주의에 속한 교수님이시지만 한 분 밖에 안 계시니까 부심이 루터파 계열의 교수님이 부심을 하셨는데, 제가 그 논문에다가 그분의 스승이신 독일 루터파 계열의 대가,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고 하는 분의 해석학적인 입장을 조금 비판을 했거든요?
제 실력에 뭐 그렇게 아주 깊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비판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불쾌해했는지 몰라요.
자기 스승의 생각을,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햇병아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고, 그래서 결국 저의 주심인 지도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괴팅겐에서 네가 루터 계열의 신학자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대결을 벌이면서 쓴 논문이 통과가 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루터!,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도 독일신학계를 주름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흠집을 내도 인정을 하는데, 루터에 대해서는 흠집 조금만 내면 난리를 치니까, 루터가 하나님 다음이라는 말도 나오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한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좋고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께 절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독일신학계에서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것이 마치, 루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느끼게 된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독일은 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신학을 하나?
그건 절대 아니고, 그만큼 마르틴 루터의 비중이 신학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수가 성 여인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수가 성 여인이 전도를 받고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요.
루터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루터가 느낀 예수님의 매력을 나도 나 스스로 발견해야 참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만 의지할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독일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루터가 갖는 비중과 의미보다, 몇 배 더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순신장군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민족영웅이에요.
왜냐하면 이 순신 장군은 그분의 나라를 구하신 역사가 500년이나 지난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벌써 1500년이 지나도록 모세가 건네준 그 율법이 유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순신장군의 난중일기와 모세의 율법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유대사회에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황제가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 자신에게는 로마황제 이상 가는 의미가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월등하시다, 그분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인 줄이나 알고 감히 천사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 믿는 거로는 부족해 가지고 천사에 대한 믿음을 발동을 시켜야 온전히 충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불성설이다.'

근데 똑같은 의미에서 오늘은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모세가 굉장한 자라는 걸 알고 있고, 너희가 얼마나 모세에 대한 존경이 끔찍한지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를 통해서 보충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할 때 너무나 월등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근데 이거 참 재미있는 것은, 앞에 로마서 같은데서 사도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모세의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바울에 의해서 제시된 주제가 뉘앙스를 달리하고 색깔을 달리해서 다시 재현되는 듯 한 느낌입니다.
대신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 모세와 복음의 사건의 장본인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주제가 재현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를 잘 따라가면서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선민으로서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의 질과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내 영적인 뿌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알면서, 아주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들어가 봐요.
우선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앞에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선민을 부르시는데 동원된 분들이십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근데 이 부르실 때에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해요.
주님을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데서는 찾기 힘든 표현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에요.
선민을 부르기 위해서는 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모세도 보냄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보냄을 받아 선민을 불러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것이 또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몇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을 근거하고 성경전체를 통해서 한 번 대략적으로 살며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먼저, 다섯 가지의 비교 요소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요 다섯 가지 비교 요소를 꼽아 가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자질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구나, 나의 신앙은 현주소가 어디구나, 내 영적인 뿌리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자 이겁니다.
이 영적인 Identity가 분명할 때, 해머로 세상을 깨고 나가듯이 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자꾸 굴복하는 이유가, 영적인 Identity, 내가 영적으로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걸 조금 살펴보자는 거dP요.

자! 먼저, 비교가 되는 요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어디로부터 이 두 분이 보내지십니까?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들판에서 처가살이로 양치기를 하다가 보내집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보내지십니다.
아 요거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애굽이 그 당시에 슈퍼강대국이라서, 지금의 G2 정도로 얘기해도 애굽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나라의 왕자로 생활을 했어요, 애기 때부터.
근데 그런 슈퍼강대국의 왕자였던 사람이, 미디안 들판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처가살이 양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여기에 엄청난 자기비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엄청난 자기비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자기비하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강압적이고 필연적으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꿈도 비전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다할만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의 상태를 보면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에요, 사기.
완전히 꿈도 비전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내시는데도 못한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이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근데 꿈과 비전을 갖고, 의욕을 갖고 만만한 마음으로 달려드는, 다 하나님의 일이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 일하기에는 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놈인가? 나 같은 놈이 어디를 봐도 죄밖에 안 보이고, 앞뒤를 봐도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인데 아무것도 못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쓰십니다.
하여간 이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왕자로부터 처가살이 양치기까지의 자리로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원래 자기 모습이 또 그러니까 필연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값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당신 자신이 비워버리십니다, 자발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강압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몰려간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비워버리십니다.
이 대단한 자기비하 아닙니까?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모세는, 죄를 짓고 죄인 걸 깨닫고 그러면서 밀려가서 자기비하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죄 하나 없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선민을 사랑하시는 것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는 자기비하를 이루어 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모세가 그리스도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비교가 안 될 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도 없지요 사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죄인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교의 요소는, 그렇게 보냄을 받아 가지고 불러내야 될 선민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온 집'이라는 게 선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민의 상태가 달라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는 이미 지어져 있는 집 안에 들어와서 봉사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집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보내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미 애굽 땅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늘어나 있을 때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불러내야 될 선민들은 단 한 명도 드러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민의 공동체가.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한 혈육의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명도 없었고, 전부 예수님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열두제자를 불러서 열두제자가 공동체를 이룹니다마는, 그 열두제자를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수가 성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혈루 병 앓던 여자가 그 많은 군중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딱 독대를 하고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바울을 다메섹 상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선민에게 속하게 됩니다, 선민의 공동체 속에.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개인을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와 가지고 선민의 공동체로 된 거에요.
모세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이미 형성된 공동체에 와 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었습니까,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합쳐야 예수님의 갖는 포지션에 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위치, 유대인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이 불러내십니까?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불러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세상의 노예가 뭡니까? 왜 세상의 노예가 돼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붙잡고 놓지 못해가지고, 죽으면 그것을 다 놔버리고 상실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육체가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평생 노예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방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는 가치를 마음에 붙잡는 거, 이게 죄악이거든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쓸 일이 있을 때 써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붙잡고 있는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상태에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그 노예근성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해방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내면 어디를 통과합니까?
모세는 광야를 통과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광야와 십자가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광야의 의미가 뭐에요? 광야에는 세상의 삶이 없어요.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중요한 활동의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움직일래야 움직일 가능성조차를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움직인다고 물이 생깁니까? 옷이 생깁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생기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왜 그곳으로 끌고 가셨느냐?
기적적으로 먹이시면서, 오직 관심을 마음의 관심을, 네 육체가 먹고 사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몰두하라고 삶을 죽여 버리신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죽여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에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될 관심을 다 죽여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죽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몰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맞물려지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사건은 주님께서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상에 대해 죽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내 마음에 살처럼 붙어 있던 이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 가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찢어내십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마음을 진짜 찢어 내시고, 세상의 삶을 찢어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모세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세상의 삶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광야로 데리고 나갔을 뿐이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찢어져 결별하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할 점은, 그렇게 불러내고 광야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는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복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마음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으라고 하고 그거로 끝내자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마음 놓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복지에 준하는 곳이 그리스도 안, 사도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끝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세상을 벗어나는 사건이고, 벗어나면 발을 헛디디고 우주 공중에 빠져버립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공간.
그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모든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 마음을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너머의 영역으로 마음이 들어가면, 여기에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만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이쪽으로, 세상 쪽으로 튀어나오면 모를까, 일단 들어가면.

근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갔고, 그 가나안 복지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고 맙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하고, 광야를 지나고, 복지에 이르렀지만, 복지로 이끈 건 여호수아지만 어쨌든 이르렀지만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광야 같은 십자가를 지나면서 세상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제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는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러면 모세의 역사의 의미가 뭐냐?
그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 들어가는 상응하는 면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 이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역사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모세를 믿으려고 하느냐, 모세를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이고, 이 모세가 예수님에 비해서 우월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노벨상의 33%를 차지한 자들,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자들, 뭐 철학가다 음악가다 교수다, 미국대학 교수의 30%래요, 유대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대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만 못한 이유가, 모세보다 월등하신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이, 우리에게 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의 그리스도 되신 분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 이삭도 아니고, 다윗도 아

니고, 모세도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미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인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